



명 연기에 ... 본명 잃은 배우들

“야 더 멋있어졌어-”라며 토크쇼 게스트로 찾아온 변우석을 반갑게 맞이한 유재석. 알고 지내던 동생인데도 그의 이름을 ‘선재 씨’라고 잘못 부르고, 실수에 당황한 듯 말을 더듬는다.

19일 방송가에 따르면 배역을 잘떡같이 소화해낸 배우들이 본명 대신 극 중 캐릭터의 이름으로 불리며 인기를 끌고 있다. 대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데 성공한 배우들이 배역 이미지를 뛰어넘어 성장세를 이어갈지 활약이 주목된다.

대표적으로 tvN 화제작 ‘선재 업고 튀어’ (이하 ‘선업튀’)의 주연 변우석이 있다. 풋풋하면서도 애뜻한 로맨스 연기로 여심을 사로잡은 변우석은 본명보다 극 중 배역인 류선재로 더 많이 불린다.

배우의 개인 사생활관리서비스(SNS)에는 선재를 부르며 뜨거운 팬심을 드러내는 댓글들이 줄을 잇고, 이달 초 전주국제영화제 레드카펫에 올랐을 때 역시 팬들은 변우석의 이름 대신 ‘선재야’를 외치며 환호했다.

tvN 토크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 변우석은 “요즘 항상 선재라고 불린다”며 대중의 뜨거운 반응에 “어리둥절하고 심장이 발렁발렁 뚱다”고 소감을 밝혔다. 배우 박성훈도 ‘이름 잃은 배우’ 중 한 명으로 빼놓을 수 없다.

대학 졸업 후 대학로 연극 무대에서 활동하다가 2008년 영화 ‘쌍화집’ 속 단역으로 데뷔한 박성훈은 ‘더 글로리’에서 강렬한 악역 연기로 확실한 눈도장을 찍은 뒤 줄곧 배역 이름인 ‘전재준’으로 불리고 있다.

‘더 글로리’ 이후 출연한 드라마만 4편인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마주치면 “전재

애트 로맨스 ‘선재 업고...’ 학폭 다룬 ‘더 글로리’ 등 배우 변우석·박성훈·박지환, 류선재·전재준·장이수 등 극중 캐릭터 이름으로 불려 본명 아닌 배역으로 존재감 큰 기회이자 극복해야 할 과제

준”이라며 수군거린다고 한다.

최근 tvN ‘눈물의 여왕’ 중역을 기념해 진행된 인터뷰에서 박성훈은 “재준이 소리를 듣는 게 오히려 재미있다”며 “한 작품씩 해나다 보면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다가 언젠가는 제 이름을 다시 찾게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백상예술대상에서 남자 신인상을 받은 배우 이정하도 ‘봉석’이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한 배우다. 지난해 디즈니+ 화제작 ‘무빙’에서 걸맞았던 공중으로 떠오르는 고등학교 3학년 김봉석 역으로 얼굴을 알렸다.

영화 ‘범죄도시’ 시리즈 속 감초 역할로 주목받은 배우 박지환 역시 배역 이름인 ‘장이수’로 더 많이 불린다. 최근 박지환이 ‘SNL 코리아’ 시즌5 호스트로 출연하자 신동엽은 그를 ‘더블 천만 배우 장이수’라고 소개했고, 이와 함께 ‘호스트 장이수’라는 자막이 등장했다.

본명이 아닌 배역 이름이더라도, 존재감을 알리는 경험은 배우들에게 큰 기회로 작용한다. 현재는 내로라하는 주연급 ‘연기파 배우’로 성장한 조정석도 한동안은 영화 ‘건축학개론’ (2012) 속 ‘납득이’로 불렸고, 안재홍은 드라마 ‘응답하라 1988’ (2015) 속 ‘장봉이’로 불렸다.

김교석 대중문화평론가는 “주로 연기를 갖춘 ‘준비된 신인’들이 캐릭터에 생명을 불어넣는 강렬한 연기로 본명을 잃고 극 중 배역으로 불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배우도 연기를 잘하고, 극 중 캐릭터의 임팩트도 커야 그 배역을 연기한 배우가 주목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배역 이름으로 불리는 경험은 큰 기회인 동시에 극복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오랫동안 사랑받는 주연급 배우로 성장하려면 다양한 배역을 소화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칫 하나의 이미지로 굳어지게 되면 배역의 선택지가 좁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전작과 다른 결의 캐릭터를 선택해 이미지 편식을 피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늘글맞은 코믹 연기로 얼굴을 알린 조정석은 이후 드라마 ‘오 나의 귀신님’ (2015), ‘질투의 화신’ (2016) 등에서 까칠한 면이 있는 캐릭터로 열연을 펼치며 ‘납득이’라는 이름을 벗었고, 안재홍은 로맨틱 코미디 ‘쌈, 마이웨이’ (2017)에서 알미우면서도 현실적인 멜로 연기로 본인의 스펙트럼을 넓혔다.

김 평론가는 “그래도 배역 이름으로 불리는 신인들은 주연급 배우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큰 언덕을 넘은 셈”이라며 “꾸준한 노력으로 인기를 이어가며 인지도를 바탕으로 큰 무대를 만들어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습하다

김호중, 뽕소니 논란 속 콘서트 강행

“진실 밝혀질 것” 심경...창원 콘서트 팬 상황에도 비판 여론 확산

음주 운전과 뽕소니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 (33·사진)이 18일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이번 논란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가요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이날 오후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전국투어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에서 “모든 죄와 상처는 내가 받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고 이후 꼬리를 무는 의혹에도 이번 콘서트를 강행해 대중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그러나 이날 공연이 열린 창원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 주변은 그를 여전히 지지하는 팬들로 공연 시작 수 시간 전부터 인산인해를 이뤘다.

팬들 대부분은 50대 이상 중·장년층 여성으로, 김호중 팬덤 색깔인 보라색 옷을 입고 공연장 인근에 마련된 포토존에 긴 줄을 서는 등 콘서트에 기대감을 드러내는 눈치였다.

그러나 팬들은 김호중을 둘러싼 여러 논란과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본인도 얼마나 속상하겠느냐. 이렇게 인터뷰하고 싶지 않다”며 취재진 인터뷰에 응하거나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그를 옹호하는 현장 팬들 분위기가 오는 다르게 일반 시민들은 공연 강행에 비판적인 시선을 드러냈다. 공연장 주변 공원에 산책 나온 60대 시민 장모 씨는 “잘못이 있다면 빠르게 인정하는 게 맞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김호중이 논란을 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호중의 인스타그램에는 “콘서트 예매를 했는데 (지금) 취소하려면 수수료가 10만원 넘는다고”며 공연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댓글이 달렸다. 인터넷 예매 기준 이날 공연 가격은 VIP석이 23만원, R석이 21만원이다. 20만원이 넘는 가격임에도 수천석의 좌석이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물의 연예인들, OTT로 슬쩍 복귀

‘음주운전’ 배성우 등 넷플릭스 작품 공개...도덕적 해이 만연 우려

사회적인 물의를 빚거나 범죄를 저지른 배우들이 상대적으로 감시와 비판에서 자유로운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작품으로 복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OTT는 비용을 지불하고 가입한 이들만 시청하는 만큼 지상파 방송과 같은 공공성을 띠고 보긴 어렵지만, 물의를 빚고도 쉽게 활동을 재개하는 모습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어 우려된다.

19일 영상 콘텐츠 업계에 따르면 2020년 11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배우 배성우는 지난 17일 넷플릭스가 공개한 오리지널 시리즈 ‘더 에이트 쇼’에 비중 있는 역할로 출연하고 공식 홍보 행사인 제작발표회에도 참석했다.

배성우는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 출연 중이던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웅’에서 하차했다. KBS와 MBC도 배성우의 출연 정지를 결정했지만,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에는 출연 제약이 없다.

비판을 예상한 듯 배성우는 제작발표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기 전에 사과했다. 연출을 맡은 한재림 감독은 “그간 (배성우가) 굉장히 많이 죄송해하고 힘들어했고, 그런 마음을 충분히 봤다”고 설명했다.

배성우 외에도 글로벌 OTT 작품으로 복귀한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배우 정석원은 2018년 2월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돼 이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정석원은 체포될 당시 촬영 중이던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킹덤’에서 하차 없이 촬영을 계속했다. 이후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카네트’에 캐스팅돼 2021~2022년 촬영을 거쳐 2022년 작품이 공개됐다. 배우 하정우는 2020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



류되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가 드러나 활동을 중단하고 이미 촬영한 영화들도 개봉이 미뤄졌으나 2022년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수리남’으로 복귀했다. ‘수리남’은 하정우가 재판받던 2021년에 촬영됐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물의를 빚은 유명인들의 출연을 규제하는 것과 달리 OTT에는 이 같은 규정이 없다. 특히 글로벌 OTT는 한국 내에서 서비스하는 토종 OTT와 달리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만큼 국내 이용자들의 비판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국내 이용자들이 비판하고 외면하더라도 해외 성적에는 큰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현재로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플랫폼의 영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큰 만큼 사회적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 질소처리용 중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중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 응집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봉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태림인더스트리㈜ 법인설립
- 2011 수출백만불,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모범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청 모범납세자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